

■오늘은 '51회 정보통신의 날'... 'KT 전남 망관리센터'의 24시

“통신 끊기면 세상이 마비”

인체의 모든 장기는 뇌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뇌 신경은 척추를 통과하는데 척추에서 나온 신경이 말초 기관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만약, 신경제어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균형이 깨져 근육과 말초신경이 '초긴장 상태'에 이르고 만다.

'KT 전남 망관리센터'(NMS·Network Management Center)는 바로 이런 '제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총 34명의 직원이 '지역망 관리' '전송망 관리' '인터넷망 관리' '재난·재해 관리'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 이들의 임무는 '광주·전남의 통신(전화, 인터넷 등)망을 실시

장비 47종 6,586개 보유

간으로 감시, 통제'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마 당장 내일부터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 겁니다."

이정후 KT 전남본부 홍보실장은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망 관리를 지난해 9월1일 통합해 교환망 34만 회선, 신호망 516링크, 전송망 43만3천여 회선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 설치된 시스템은 감시터미널 3대·원격단말기·감시화면 등 47종 6천586개다.

NMS의 중요성은 지난 '2.8 통신 대란'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부산과 경기지역 일대에 통신이 끊길 때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장치가 고장나 통화가 8시간 이상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망관리센터는 지역, 또는 국가별 통신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망관리센터의 시스템이 다운되는 불상사가



KT 전남 망관리센터' 직원들이 '망관리시스템'의 화면으로 전남 지역의 통신망을 지켜보고 있다. 이곳은 광주·전남 지역의 통신망에 대한 감시·제어·소통관리와 통화량 분석 및 예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총 34명, 인터넷·전화망 감시·통제

폭설 때 평소보다 30% 폭주 '아찔'

바이러스 철저히 감시... 피해 사전예방

비대 운전자들이 도로에 갇히자 인부들을 확인하는 전화가 폭주했던 것. 평소 동시 통화량이 평균 2만5천~2만9천 건이었다면 이날은 3만8천 건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폭주했다. 망관리센터 직원들은 재빨리 통화를 제어하며, 사무실 곳곳을 뛰어다녔음은 물론이다.

"망관리센터는 지역, 또는 국가별 통신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망관리센터의 시스템이 다운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요? 평소 통신량만 유지된다면 '마비'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테러라도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 팀장은 "마치 계기관을 보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예를 들었다.

ARS 소에는 TV 퀴즈프로에서 실시간 퀴즈 문제가 나가면 통화가 폭주한다. 그래서 망관리센터 중심에 위치한 커다란 칠판에는 '오늘저녁 7시 광주MBC 퀴즈왕송' 식으로 안내 문구

가 적혀있다. 미리 '대비'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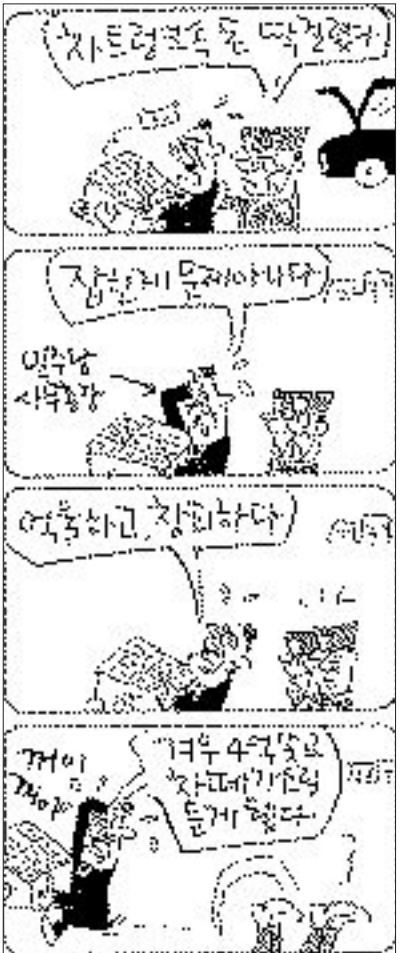
인터넷망관리 팀에서는 바이러스 관리도 함께 한다. 이상훈 인터넷망관리 운용실장은 "윈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도 유해 트래픽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지되자 이유를 분석하고 해당 포트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방문한 20일 오전 9시52분.

정전 확인 1분도 안걸려

광산구 지역에 통신 장애 발생 '경보'가 됐다. 직원은 곧바로 '하남지점 임곡 오프, 한전 정전발생. 발전기 가동 회복 VOS(고객민원) 0건'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53분, 센터의 지시에 따라 해당지역 담당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장애 지점을 확인했다. 투입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김홍도 '행려풍속도'

병풍 12억 경매 출품

단원 김홍도의 '행려풍속도(사진)' 6폭 병풍이 시작가 12억원에 서울옥션 경매에 출품된다. 21일 서울옥션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5시 경매동 서울옥션 하우스에서 진행되는 제101회 근현대 및 고미술 경매에서 비단에 수묵으로 그린 김홍도의 6폭짜리 '행려풍속도 6첩병' (연도미상)이 시작가 12억원에 경매된다.

발걸이, 누시질, 나뭇배, 양만가, 나그네, 모내기 등 6장면을 단원 말년의 원숙한 필치로 그렸고 한폭당 폭 39.1cm, 높이 88.5cm의 대형 작품이다. /연필뉴스

황우석前교수 '파면불복' 교육부에 소청심사 청구

논문조작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법정 시한인 60~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파면·해임된 교수들은 거의 예외없이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청구가 인용돼 징계 수위가 낮춰진 사례는 없었다. /연필뉴스

직원실수로 월급 2억~4억씩 지급

○"농협이 충남 금산교육청 교직원 540여명의 급여를 입금하면서 실수로 수억원대의 월급을 지급했다 40분만에 회수하는 소동. ○"21일 농협 금산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금산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월급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전산 처리상의 실수로 평균 200만~400만원 일 월급이 2억~4억원씩 지급됐다는 것.

○"농협은 엑셀 프로그램 작업 중에 급여액이 들어가는 셀과 교육청 고유 코드 '01'이 쓰여 있는 셀이 합쳐지는 바람에 생긴 오류로, 입금 뒤 40여분만에 이를 바로잡았다고 설명. ○"농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파일을 넘겨 받아 옮기는 과정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며 "입금 직후에 이를 발견해 해 빨리 회수했고 그 사이에 돈이 인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 /연필뉴스

또 비야? 4월 22일 (음 3월 25일) 날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광주	8~12℃
포항	8~11℃
여수	8~11℃
완주	8~12℃
안동	7~12℃
대구	7~12℃
대전	7~13℃
충주	7~11℃
청주	6~12℃
서울	7~11℃
인천	9~12℃
부산	6~12℃
제주	6~12℃
목포	6~11℃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0.5~1.5m

서해남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2.0m

▲해돋이 05:52 ▲해질 19:10
▲달돋이 02:32 ▲달질 12:47

목포 밀물 09:02 썰물 01:22 여수 밀물 04:33 썰물 11:09
21:16 15:06 16:56 22:51

날짜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8/18	8/21	7/23	10/21	11/17	7/19

오늘 비 온다... 5~10mm '축축'

주말, 광주·전남에 또 비가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22일 오전 9시 이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하루 종일 5~10mm의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비가 내리면서 남해서부 모든 해상과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2일 밤부터 우리 나라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그쳐, 휴일인 23일에는 나들이가 좋은 하루가 될 전망이다.

주말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1일보다 2도 높은 8도, 낮 최고기온은 6도 떨어진 13도로 예상된다.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 18도로 다시 포근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등산객들은 산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셰익스피어는 사생아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아들"

美 극작가 주장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1세(사진)의 사생아다." 오는 25일 영국 런던에서 강연을 하는 미국의 극작가 폴 스트라이츠가 자신의 저서 '옥스퍼드: 엘리자베스 1세의 아들'이라는 책에서 이 같은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고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스트라이츠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 영국과 결혼한 처녀 여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엘리자베스 1세가 기존 학설과는 달리 사실 사생아를 몇 명 낳았고, 1548년 비밀리에 낳은 첫 번째 사생아가 바로 셰익스피어라고 주장한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아기를 낳은 후 귀족인 16대 옥스퍼드 백작 존 드 비어 부부에 맡겼으며, 이 아기는 17대 옥스퍼드 백작 에드워드 드 비어라는 이름으로 양육됐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도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웹과 소네트에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스트라이츠는 말했다.

10대의 엘리자베스가 야심만만한 궁정 신하 토머스 세이모어 경과 로맨스를 가졌으며, 이후 임신-출산으로 혼동한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스트라이츠는 주장했다. 토머스 세이모어가 웃을 벗은 채 엘리자베스의 방을 방문했고, 음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필뉴스



전남 친환경농산물 재배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20일 정성 학사농장을 방문한 서울지역 소비자 대표들이 농장관계자로부터 친환경농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인터넷 '독도 지키기' 후끈

다음, 독도 모습 24시간 생중계 서비스 옥션 '독도 수호 기금 천만 댓글 이벤트'

일본 정부의 독도 인근 해상 측량 계획 파문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터넷계가 다양한 독도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포털 다음은 21일 독도의 모습을 24시간 실시간 보여주는 독도 생중계 서비스(issue.media.daum.net/japan-eez/index.html·사진)을 시작했다. 독도 생중계는 24시간 내내 여러 각도의 카메라로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석 달간 계속된다. 다음은 또 독도 관련 속보, 독도 관련 사진 게시판, 독도 사랑 메시

지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독도 사랑 메시지는 하루만에 4만9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장터(마켓플레이스) 옥션도 독도 지키기 댓글을 올리는데 따라 독도 수호 기금을 조성하는 '독도 지키기 천만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독도에 대한 의견을 남기면 1건당 옥션이 기금 1천원을 내놓아 1만명의 댓글이 모이면 총 1천만원을 독도 수호 의연금으로 기부하



게 된다. 옥션은 의견을 남긴 회원 중 100명을 추첨해 독도 사랑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증정한다. 옥션 관계자는 "독도 파문으로 인해 독도 기념 우표 등 독도 관련 상품 판매 등 록건수가 지난해보다 50% 가량 늘어 현재 약 200여건의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독도사랑' '우리 땅 지키기' '독도공주' 등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옥션 상품명, 브랜드명으로 등록시키는 판매자도 늘고 있다고 옥션은 덧붙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김학재 변호사 기소 윤상림씨 비리 사건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해남출신 김학재 전 대검 차장 등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2명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학재 전 차장은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평소 친분이 있던 윤씨를 통해 진흥원회사 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6건을 모두 5억1천900만원에 수임하고 수 차례에 걸쳐 1억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부하 경찰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차장에게 뇌물을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경찰관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